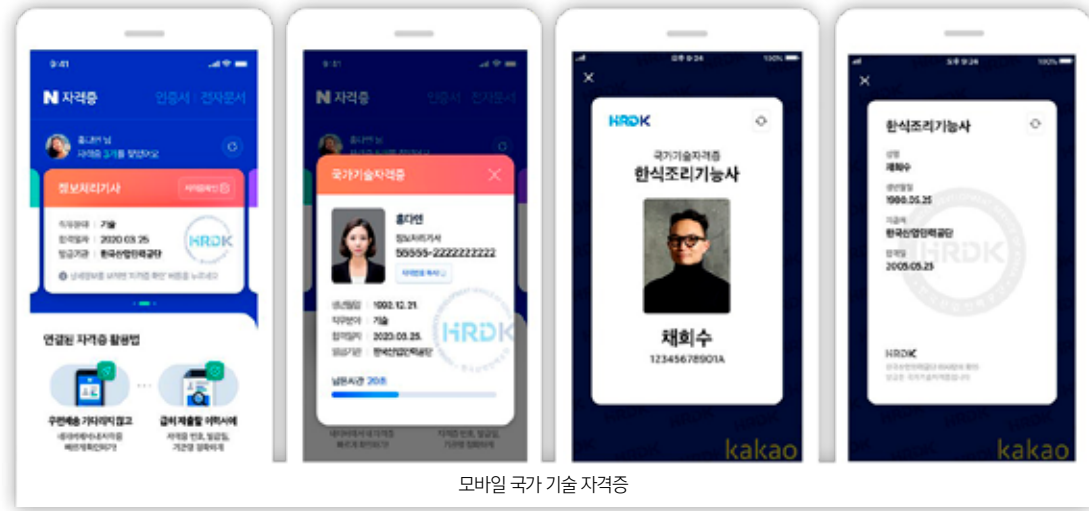


# 국가자격 전자 증명으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모바일 국가 기술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이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맞는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업, 취업 등 일자리와 밀접해 국민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가자격 시험(기술자격, 전문자격) 응시인원은 365만여 명에 달했다.

공단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자격 취득부터 발급·활용까지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서비스 틀과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아 쉽게 활용하는 모바일 자격증 시대를 열었다.

IC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자격증을 담는 방식으로 자격증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 11월 정부24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국가기술자격 전자 증명 서비스를 구현했다. 정보처리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495종이 대상이다.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국가자격 시험 응시자들이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3월 2일 실시한 제회기사 필기시험에서 모바일 국가 기술 자격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해 수험자 신분을 확인했다.

국가자격 전자 증명을 기반으로 '국가자격 서비스 초연결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다. 공공·민간 취업 기관과 협업해 취업, 승진 등 경력개발 분야에서 자격과 학력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지난해부터 구직자들은 채용 플랫폼(사람인 등)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네이버에서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 응시자

점수 분포도 등을 분석해 수험자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험 결과 개인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수험자별 취약점, 취업 정보 등을 안내해 청년들에게 경력 설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난해 기능사와 산업기사 일부 자격에 시범 실시했고, 올해 자격 종목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가자격 최초로 가상현실(VR),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험방법을 도입해 시험 관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수험자의 응시권도 보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기술사 면접시험에 메타버스를 활용해 최초 적용했다. 앞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가자격 시험' 방법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제는 일상으로 다가온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춘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자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옥



# 함께한 40년 함께할 HRDK

사람과 기술을 이어온 4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0년간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숙련기술장려, 해외취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사람과 기술을 이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HRD)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